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101

JCCT 2017-11-12

뉴스미디어에서의 이데올로기 차이: 2016년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Ideological Discrepancies in News Media: Focusing o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노보경*, 반현**

Bokyung Noh*, Hyun Ban**

요약 본 논문은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대통령 후보들에 관한 뉴스담화를 통해 어떻게 언론 사실들은 뉴스담화를 프레임시켜 자신들의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전달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실들 13개를 선택하여 첫째로 각 사실의 헤드라인들, 그리고 둘째로 13개 사실 중에서 특정 사실 두 개에 명시된 평가어들을 분석하여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파악하였다. 이 분석에는 반다이크(1996)의 비판적 담화분석의 도구인 '이념적 틀'과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뉴욕타임즈의 사실들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놓고 표명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그 중에서 선정된 두 사실들은 반다이크의 이념적 틀의 '강조' 전략 체계에서, 힐러리에게는 '감정'요소를, 반면에 트럼프에게는 평가이론의 '판단'요소를 활용하여 각자의 이념적 관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주요어 : 이념적 틀, 평가이론, 미국 대통령 선거,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news media frame news editorials to deliver their subjective ideological stance through news discourse related with two candidates in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For this purpose, 13 editorials were chosen and analyzed which appeared on the New York Time for the period from Sept. 1 to Sept. 30, almost two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giving special attention to the headlines of those editorials and the expressive linguistic forms in the selected two articles, based on the two theoretical frameworks-van Dijk' (1996)'s ideological square and Martin and White (2005)'s Appraisal Theo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editorials clearly supported Hillary Clinton; (2) following the appraisal theory, the category of 'feeling' was applied in expressing the preference for Hillary, whereas the strategy of judgment for Trump, where the strategy of 'emphasis' from the ideological framework were used for both candidates.

Key Words : ideological square, appraisal theory, U.S. presidential election, Hillary Clinton, Donald Trump

I. 서론

뉴스담화는 사람들이 현실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이념들을 전달한다. 홀(Hall, 1982)에 따르면, 이념이란 언어, 개념, 표현체계를 포함하는 정신적 틀이다.[1] 즉,

*정회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영통번역학과

**정회원,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9월 20일, 수정완료일: 2017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23일

Received: 20 September, 2017 / Revised: 10 October, 2017

Accepted: 23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amesban@naver.com

Dept. of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이념이란 대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종합적 가치관이 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반다이크(van Dijk)는 “신문은 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조직체의 이념들을 투영해주며, ‘언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상되는 이념들은 엘리트들이 만들어 낸 것들’(1996, 180)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 미디어는 한 국가를 지배하는 사회 정치적 관심사에 대해 대중의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정짓는다 (Herman & Chomsky, 2002)[3] 터크만(Tuchman, 1978)도 뉴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언론사와 기자들의 특성에 따라 재편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4] 비단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장경수, 이순미, 2016).[5]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뉴스담화 중에서 사설(editorial)만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뉴스담화에서의 언어적 표상들이 어떻게 이념적 성향과 편향된 관점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반다이크(1996)의 이념적 틀(ideological square)과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평가이론(appraisal theory)[6]을 이용하여 뉴스담화가 어떻게 언론사의 이념을 전달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설, 이념적 성향과 편향

사설은 일반 기사와는 달리 언론이 지향하는 이념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설의 미디어 담화는 뉴스담화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관행 분석에 대한 근간이 된다. 사설의 미디어 담화는 사회적 관행과 언어 간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등의 일반 기사들에 비해 사설만을 소재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하니와 테이터(Haney and Tator, 2002)에 따르면, 사설은 언론사주와 편집장들의 전체적인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주장한다.[7] 예를 들어, 사설은 중립성을 표방하지 않으며 일반기사보다 특정사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반다이크(1996)도 사설은 필연적으로 사건을 요약하거나 재구성

하게 되면 이러한 요약 및 선택 작업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들을 전제로 구성되며, 따라서 양극화된 어휘들, 과장된 표현 및 수사학적 표현들을 사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이념적 틀과 평가이론

본 논문은 반다이크의 이념적 틀 개념과 마틴과 화이트의 평가이론의 일부 전략을 활용하여 어휘선택을 기초로 언론사가 어떻게 뉴스담화를 프레임하여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전달하는 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반다이크의 이념적 틀 모델은 두 가지 기준, ‘우리’(we, us, our)와 ‘그들’(they, their, them)을 지정하고 ‘강조’(emphasis)와 ‘완화’(mitigation)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모델은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낼 때 특정 사안, 혹은 인물에 대한 상반적 입장을 각각의 그룹으로 형성한 후, 그 중에서 선택한 한 그룹을 ‘인그룹,’ 반대적 입장을 ‘아웃그룹’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표방되는 ‘인그룹’의 부정적 속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그들’이라 표방하는 ‘아웃그룹’의 긍정적 속성과 가치를 완화시켜 표출하지만, ‘우리’로 표방되는 ‘인그룹’의 긍정적 속성과 가치와 ‘그들’이라 표방되는 ‘아웃그룹’의 부정적 속성과 가치를 강조한다. 즉, ‘인그룹’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시키면서, ‘아웃그룹’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경우, 혹은 ‘인그룹’의 부정적 속성을 완화시키면서, ‘아웃그룹’의 긍정적 속성을 완화시키는 두 트랙 전략을 이용할 경우, 편향적 속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본 논문은 선정된 두 개의 사설에서는 선택된 어휘들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했다. 뉴스담화에서 어휘는 이념을 표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페어클러프(Fairclough, 2001)는 어휘선택은 대상간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며[8], 사익스(Sykes, 1985)도 어휘선택은 동일한 대상에 서로 다른 잣대의 이념적 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9] 실제로 지칭 대상은 같지만 ‘freedom Fighter’ 대비 ‘terrorist’라는 어휘대비를 통해, 동일한 대상을 전자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사’로, 후자는 ‘테러리스트’로 그려진다. 마찬가지로, 노와 반(2014)은 낙태에 관해서도 낙태대상에 있어 ‘unborn baby’와 ‘fetus’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10] 즉, 낙태를 반대

하는 뉴스담화는 'unborn baby'나 'unborn boy'라는 표현을 선호하지만, 낙태권을 찬성하는 뉴스담화는 'fetus'(태아)와 'zygote'(집합적 세포) 같이 감정이입을 배제한 언어적 표현들이 선택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선택된 어휘 분석과 관련, 본 연구는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어휘를 통해 그려지는 이미지를 크게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했다. 평가어란 자신의 감정, 판단을 드러내주는 언어를 의미한다. 평가이론은 크게 태도(attitude), 강조(graduation), 개입(engagement)로 나누어진다. 강조는 태도를 과장하는 어휘와 축소시키는 어휘로 분류시키고, 개입은 뉴스담화에서 제시된 주장에 대한 저자/화자의 입장을 의미한다. 태도는 세부적으로 감정(feeling), 행위의 판단(judgment), 그리고 감상(appreciation)으로 하위분류된다.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등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 반면, '행위의 판단'은 옳고 그름, 거짓과 참, 그리고 보편적 평가 등을 위미하여, 이런 경우는 근거를 가질 때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감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이해와 함의성들을 나타낸다.(김병건, 2016)[11] 즉, 이러한 평가어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마틴과 화이트(2005)는 텍스트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이념적 표상들을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두고, 본 논문은 반 다이크의 이론적 틀과 마틴과 화이트의 평가이론 중 '태도'에 중점을 두고 사실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주제 및 방향

본 연구는 뉴욕타임즈 사실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시 미국대선의 두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어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분석하였다. 뉴욕타임즈는 영향력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지중 하나이기에 선택되었다. 보도 시기는 각 당의 후보가 선정되고 TV 토론이 시작되는 때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9월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를 선정했다. 이 기간 동안 뉴욕타임즈에 실린 99개의 오피니언(opinion) 기사들 중에 칼럼(column)은 86개, 사실(editorial)은 13개였다. 이 중에서 사실이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성향이 있다

는 점을 고려 13개의 사실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13개의 사실들의 헤드라인과 서브헤드에 대한 평가어들을 긍정/부정/중립으로 나누어 양적 분석하였다. 단, 편의를 위해 본 논문은 헤드라인과 서브헤드(부제목)를 간단히 헤드라인으로 지칭했음을 밝혀둔다. 둘째, 그 중 2개의 사실을 선정하여 평가이론의 세부항목인 '태도' 기준에 맞추어 의미 분석했다. 즉, 사실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된 최하위 분류단위인 감정, 판단, 감상으로 나누어 평가어들을 분류한 다음, 그러한 평가어들의 감정이나 판단이 긍정 혹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이념적 틀과 평가 이론을 접목한 틀은 다음과 같다

표 1. 이념적 틀 평가이론을 바탕으로 한 융합 모델
 Table 1. An Integrated Model based on Ideological Square and Appraisal Theory

	(1) 헤드라인: 평가어 (태도)		
이념적 틀	긍정	부정	중립
인그룹	강조/부각	축소/완화	—
아웃그룹	축소/완화	강조/부각	—
	(2) 내용: 평가어(감정/판단/감상)		
인그룹	긍정/부정	긍정/부정	긍정/부정
아웃그룹	긍정/부정	긍정/부정	긍정/부정

IV. 담화분석 및 결과

13개의 헤드라인의 어휘들의 태도를 분석했다. 첫째, 헤드라인을 통해 각 후보에 대한 평가어들을 분석한 결과, 반다이크의 이론적 틀에서 '강조'전략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긍정적 헤드라인 3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헤드라인 5개, 이외 중립적 헤드라인은 5개로, 인그룹은 긍정을 강화하고, 아웃그룹은 부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즈 사실들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 표시를 담은 어휘로 구성된 헤드라인은 '우리의 승인은 그녀의 지성, 경험과 용기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Our endorsement is rooted in respect for her intellect, experience and courage)(9월 24일)로 여기서 승인(endorsement), 지성(intellect), 존중(respect)은 모

두 클린턴에 대한 긍정적 평가어 기능을 한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인 어휘들로 표현한 헤드라인은 ‘도널드 트럼프는 편협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거짓 공약 속에서 산다’(Donald Trump is a man who dwells in bigotry, bluster and false promises)(9월 25일)로 여기서, 편협(bigotry), 거칠게 표현하는(bluster) 와 거짓(false)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평가어 기능을 한다. 반면, 중립적 헤드라인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어느 누구도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Neither Hillary Clinton or Donald Trump has a specific anti-poverty agenda)로 ‘어느 누구도 아니다’(Neither or Nor)라는 점에서 중립적 평가어로 분류되었다. 이 외에도 클린턴이나 트럼프에 대한 긍정/부정/중립 평가어는 특정 안건이나 주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백인 우월주의자’(white supremacist), 지성(intellect), ‘거짓’(false), ‘비현실성’(unreality) 등과 같이 인성, 태도, 가치관 등을 주제로 다룰 때에는 긍정과 부정 평가어가 활용되었지만, 헤드라인이 빈곤층에 관한 주제 (2개), 건강보험(2개)처럼 민생주제나 토론포도 (1개)인 경우는 두 후보 모두에게 부정 평가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에 나타난 평가어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헤드라인을 통한 평가어 분석
Table 2. The Analysis of Expressive Language in Headlines

	제목(Headlines)
긍정 (힐러리)	intellect, courage, familiar, serious
부정 (트럼프)	lie, white supremacist, false, bigotry, deplore, pay to play, bluster
중립	Neither, candidates' willingness

둘째, 두 개의 사실(사실 1: ‘대통령으로서의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for President)[11]과 사실 2: 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Why Donald Trump Should Not be President)[12]를 만다이크의 이념적 틀과 평가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실 1 과 사실 2 는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도구로 선택되었다.

(1) In any normal election year, we'd compare the two presidential candidates side by side on the issues. But this is not a normal election year. A comparison like that would be an empty exercise in a race where one candidate - our choice, Hillary Clinton-has a record of service, a raft of pragmatic ideas, and the others, Donald Trump discloses nothing concrete about himself or his plans (9월 24일).

일반적인 선거해의 경우라면, 우리도 안건들에 대해 두 명의 후보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일반적인 선거해가 아니다. 한 명의 후보-우리의 선택은 힐러리 클린턴-는 국정 경험도 있고 많은 실용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 혹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선거에서 그 같은 비교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9월 24일)

(분석)

인그룹(in-group): Hillary Clinton

아웃그룹(out-group): Donald Trump

전략: 인그룹(힐러리 클린턴)의 장점과 아웃그룹(도널드 트럼프)의 단점을 강조한다. (강조 전략)

(2) In all these areas, Mrs. Clinton has offered constructive proposals. He has offered bluster, or nothing.

이 모든 영역에서, 클린턴 후보는 건설적인 제의를 제안했다. 그는 고함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한 것이 없다.

(분석)

인그룹(in-group): Hillary Clinton

아웃그룹(out-group): Donald Trump

전략: 인그룹(힐러리 클린턴)의 장점과 아웃그룹(도널드 트럼프)의 단점을 강조한다. (강조 전략)

그림 1. 이념적 틀을 이용한 분석(강조/완화)

Figure 1. An analysis based on an ideological square (emphasis/mitigation)

두 사실 모두 인그룹으로 해당되는 힐러리 클린턴의 장점을 부각하고, 동시에 아웃그룹인 도널드 트럼프의 단점을 부각하는, 일명 ‘강조’전략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을 부각시키는 요소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부각시키는 요소와 달랐다. 두 개의 사실들은 모두 힐러리에 대한 평가에서 ‘판단’항목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경험,’ ‘실용적 아이디어,’ ‘건설적인 제안’ 등은 모두 판단과 관련이 있다.

각 사실들을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이론의

태도 항목에 바탕을 두고 살펴보면 위의 대비되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도는 ‘감정, 판단, 감상’이라는 세부항목들을 가진다. 단 일부 어휘들은 감정 혹은 판단의 경계선에 위치할 수 있기에 연구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준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판단과 관련이 있었다. 즉, 표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정경험’(record of service), ‘협력’(collaboration), ‘명성’(reputation), ‘힘들게 얻은 교훈’(hard lesson), ‘영부인’(first lady), ‘올바른 과정’(correct course)와 ‘엄격한 정책’(tough policies), ‘초당주의’(bipartisan), ‘성공’(success), ‘회복력’(resilience) 등의 어휘들에서처럼,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관적 감정보다는 다수의 의견수렴으로만 결정되는 혹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증명이 가능한 어휘들이 선택되었다.

표 3. 이념적 틀을 이용한 분석 (강조/완화)
 Table 3. An analysis based on an ideological square (emphasis/mitigation)

평가항목	설명
감정	tough, tenacious, strong, determined, intellect, respect
판단	achievement, success, correct, collaboration, bipartisan, serve, determined, endorsement, resilience, capacity, hard lesson, first lady,
감상(가치)	help,

반면에,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실에서는 ‘판단’보다는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이 선택되었다.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진실추구, 분석력, 개방성, 구조와, 자신감, 의구심, 성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애, 2016).[14] 여기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진실추구, 의구심과 성숙성과 관련이 있으며,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감정적 요소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4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판단은 ‘냉소적인’(cynical), ‘잔인한’(cruel), ‘즉흥’(impulse), ‘모욕’(insults), ‘질투의’(zealous)와 같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어휘들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일부 어휘들은 감정 혹은 판단의 경계선에 위치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표 4. 이념적 틀을 이용한 분석 (강조/완화)
 Table 4. An analysis based on an ideological square (emphasis/mitigation)

평가항목	설명
감정	cruel, bluster, zealous, self-certain, unapologetic, dangerous, impulse, insult, cynical, outrageous, opaque, xenophobia, insults
판단	lie, false, degrading,
감상(가치)	—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는 힐러리 클린턴은 전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 시절부터, 상원의원, 국무부 장관 등 오랜 정치적 경력이 있지만, 트럼프는 정치적 경력이 없을뿐더러, 거친 감정적인 언행이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정과 연결되는 어휘들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2016년 미국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사실 13개의 헤드라인,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지지후보를 나타냈던 2개의 사실을 두 가지 이론적 프레임인 반다이크(1996)의 이념적 틀과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뉴스 담화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기본적 이론적 틀로 내재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어휘선택 분석을 통해, 13개의 헤드라인들은 힐러리 클린턴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둘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는 두 개의 사실과 관련, 이념적 틀의 ‘강조’ 전략이 활용되었으며,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클린턴에게는 평가이론의 세부항목인 ‘판단’과 관련된 어휘들이, 트럼프에게는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TV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포함한 특정 기간에 국한된 사실들만을 토대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기간확대 및 독자의견, 칼럼, 트윗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이념을 보여주는 폭넓은 자료를 활

용한다면 보다 신뢰 있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References

- [1] Hall, 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Methuen & Co., 1982.
- [2] Van Dijk, T.A.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R.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84 - 104. London: Routledge, 1996.
- [3] Herman, S. & Chmsky, N.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mass media. (2nd ed.) New York: Patheon Books, 2002.
- [4] Tuchman, G.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78.
- [5] Jang, K. S. & Lee, S. M., Analysis of digital video with a focus on the documentary <Colored Hear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2, pp. 9-15, May, 2016.
- [6] Martin, J. & White, P.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7] Haney, F. & Tator, C.. Discourse of dominaton: racial bias in the Canadian English-language press. Toro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2.
- [8]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Harlow: Longman, 2001.
- [9] Sykes, M. Discrimination in discourse. In T. A.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4, pp. 83-101).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Press, 1985.
- [10] Noh, B. K. & Ban, H. "Deciphering ideological representations in editorials of two quality newspap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22 No, 2, 2004.
- [11] Kim, B. K.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paper editorials and columns on progressivism,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24, No. 1, Spring 2016.
- [12] NYT The Editorial Board, "Hillary Clinton for President," <https://www.nytimes.com/2016.09.25/opinion/sunday/hillary-clinton-for-president.html>.
- [13] NYT The Editorial Board, "Why Donald Trump Should Not Be President," <https://www.nytimes.com/2016/09/26/opinion/why-donald-trump-should-not-be-president.html>.
- [14] Kim, J, A,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esposition and basic nursing scien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2, pp. 9-15, May, 2016.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6년도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